

최근 이슈가 되는 백세미 문제, 대책은?

2004년 12월 6일 제정 고시된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4호)'의 시행예정일(2005년 5월 1일부)을 앞두고, 업계에서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백세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책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백세미란 무엇인가?

백세미는 산란용 암탉과 육용 씨수탉간의 교배를 통해 생산된 알(백세미용 알)을 부화하여 병아리를 만들고, 이 병아리로 사육한 닭을 말한다. 여름철 크게 수요가 증가하는 삼계탕용으로 주로 판매가 되며 사료효율은 전용육계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병아리 가격은 전용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여름철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전체 생산량 중 5월~7월에 약 1/2 수준 생산, 48.7%).

2. 백세미의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가?

〈표 1〉에서 보면 2004년 국내에서 도계된 닭은 약 5억수 수준이었다. 이중 육계(전용)는 80.7%인 4억3백만수이고, 삼계(백세미)는 15.4%인 77백만수다. 육계와 삼계(백세미)를 제외한 닭의 비율은 3.9%인 19백만수에 불과했다.

백세미는 기타 닭의 약 3.8배에 이르는 생산량으로 양계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육계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전용육계의 19.1% 수준).

백세미의 가장 높은 경쟁력은 병아리 생산의 유연성에 있다(비수기에는 산란계로 운영, 성수기에는 백세미 생산용 모계로 활용 :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음).

〈표 1〉의 2004년 실적으로 보면 3월 2백97만 3천수 7월 1천6백62만9천수로 5.6배 신장했다.

병아리 공급면만 본다면 계절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3. 백세미를 대체할 방법은 있는가?

1) 육용종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백세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육용종계수수 증가를 가정해 볼 수도 있으나 〈표 1〉에서 보듯 7월을 기준으로 하면 육용종계를 37.8%나

〈표 1〉 2004년도 월별 도계검사실적

(단위 : 천수)

월별	육계 (전용)	삼계 (백세미)	육계 + 삼계	삼계% 삼계/육계	월별 분포	산란 노계	육용 총계	산란 총계	겸용종 토종닭	계
1월	29,815	3,439	33,254	11.5%	4.5%	800	131	18	136	34,340
2월	24,220	2,674	26,894	11.0%	3.5%	461	177	231	203	27,966
3월	24,503	2,973	27,477	12.1%	3.9%	841	38	59	292	28,706
4월	29,592	3,895	33,487	13.2%	5.1%	1,204	84	41	299	35,115
5월	34,508	8,495	43,004	24.6%	11.0%	1,162	90	38	377	44,670
6월	38,876	12,382	51,258	31.8%	16.1%	1,017	279	30	502	53,086
7월	44,172	16,629	60,800	37.6%	21.6%	889	392	47	989	63,117
8월	36,655	7,472	44,127	20.4%	9.7%	684	167	24	487	45,489
9월	32,939	4,461	37,400	13.5%	5.8%	772	291	6	345	38,814
10월	33,584	4,198	37,782	12.5%	5.5%	1,275	238	6	299	39,600
11월	34,950	4,943	39,893	14.1%	6.4%	1,708	239	7	283	42,131
12월	39,552	5,450	45,002	13.8%	7.1%	1,249	139	6	341	46,737
계	403,368	77,012	480,379	19.1%	100.0%	12,063	2,265	513	4,552	499,771
비율	80.7%	15.4%	96.1%	0.0%	0.0%	2.4%	0.5%	0.1%	0.9%	100.0%

※ 자료출처 : 농림부, 축산경영과

※ 육계 + 삼계 = 육계(전용) + 삼계(백세미)의 합계 수치

※ 삼계% = 삼계(백세미)/육계(전용)

※ 월별분포 = 삼계(백세미)의 월별 비율

증가시켜야 하며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생산과잉이 불가피하다.

2) 산란계 옹추의 활용방안

국내 산란계가 연간 약 3천만수 수준 분양된다고 보면 옹추 또한 연간 3천만수(성비1:1)를 병아리로 활용할 수 있다. 백세미보다 사료요구율은 떨어지나 병아리 가격은 백세미용 병아리 가격보다 낮으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금년같이 식란(계란)의 가격이 고가격일 경우 더욱 경쟁력이 있음).

다만, 2004년 백세미 공급량 7천7백만수의 36.4% 수준에 불과하며 하절기에만 집중하여 생산되는 것도 아니므로 백세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3) 겸용종(토종닭) 활용방안

국내 백세미는 삼계탕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출하 증량이 낮으므로 병아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담이 된다. 겸용종(토종닭)의 경우 병아리 가격이 육용병아리 수준이므로 삼계탕용 백세미를 대체하기에는 병아리 가격이 너

무 고가격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계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생산량 또한 아주 낮은 수준이다.

4) 현재의 국내 수요 상황 하에서는 여름철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세미 생산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방식으로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완전대체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시행에 관련된 백세미의 문제점

1) 제2조(정의) 1항, 2항 : 종계 및 종계장 정의 안에 백세미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질병 컨트롤을 위해 종계에 준하는 관리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

→ 종계와 종계장의 정의에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암탉 및 사육장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도권 수용

2) 제3조(적용대상) : 축산법령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

→ 미등록 종계장 부화장 및 백세미용 종란 생산 산란농장에는 적용 불가

→ 백세미의 경우 부화장을 통한 부화 통제는 가능

3) 제4조(예방접종 등의 금지) : 종계는 추백리·가금티프스에 대한 예방접종 불가

→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 없음.

→ 육용종계 가금티프스 백신 불가, 산란계 가금티프스 백신 필수

4) 제8조(검사시기) : 종계만 120일령에 실시,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에는 언급 없음

→ 종계의 경우 1년 내에 추가 검사 실시(종계 환우계 해당)

5) 제10조(검사방법), 제11조(판정기준) : 종계만 혈청 검사를 시행하므로 종계만 해당

- 1차 판정 : 급속전혈평판응집반응법 또는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으로 검사, 양성률 10% 이상 양성판정, 0% 음성판정, 10% 미만 재검

→ 1주일 이내 재검 실시하며 완료시까지 종계로 사용 불가

- 2차 판정 :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 양성률 2% 이상 양성판정, 0% 음성판정, 2% 미만 의양성 판정

→ 의양성 판정시 시장, 군수의 지속적인 관리 하에 종계로 사용

→ 백세미용 종란을 생산하는 산란계의 경우 가금티프스 백신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위 판정 기준으로 할 경우 1차, 2차 모두 양성계로 판정되어 백세미용 알을 생산할 수 없음.

6) 제13조(검사결과 조치) : 종계의 경우 양성 계군으로 판정될 시 살처분 조치하나 백세

미용 알 생산을 하는 산란계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 없음.

- 육용종계 양성계군은 살처분
-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 양성계군은 식란 판매가능(부화만 불가능)

- 7) 제15조(특별검사) :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특별 검사를 실시
- 종계,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 모두 해당
 - 단,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농장은 종계장이 아니므로 부화장을 통한 통제만 가능

5. 대책 및 결론

백세미는 현재 국내 소비 상황으로 볼 때 하절기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산업의 위치 또한 크게 성장하여 왔다. 과거 육용종계처럼 제도적인 통제를 받아 오지 않았던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가 질병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백세미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가 종계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어 질병문제를 컨트롤 해가고, 통계를 위한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부분 또한 업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은 제시하고 싶다.

- 1) 백세미는 반드시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국내 닭고기 조달 부분의 15.4%를 차지 (2004년도 실적)

2) 관련되는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령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일관성도 있어야...

3) 2005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4) 작은 닭의 기호성이 높은 소비구조의 왜곡도 바로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작은 닭 > 큰 닭 → 작은 닭 < 큰 닭).

- 큰 닭이 더 건강한 닭인데도 불구하고...

5) 계절수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중 소비량의 증가도 다 함께 노력하여 계절 식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노력도 필요하다(돼지고기의 경우 과거 “여름철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란 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여름철에 더욱 소비량이 많다).C

최 충 집 이사
(주)마니커 사육본부장